

익산 미륵사지 석탑 6월 복원공사 착공

2016년까지 기존 형태 복원 계획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며 동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오는 6월부터 복원공사에 들어간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998년부터 12년 동안 해체작업과 학술조사가 진행돼 왔던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국제 학술회의 등을 거쳐 기본윤곽이 확정됐고, 오는 6월에 착공해 2016년까지 복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복원계획에 따르면 미륵사지 석탑은 6층 석탑의 기본 윤곽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6층까지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서석탑은 기초보강과 기단부 1층에 대해서는 빠르면 오는 12월까지 훼손부재 보존처리 등을 실시하고, 2층까지는 4면으로 복원하고 3-6층은 해체지전의 원형으로 복원한다. 1층 하단부에 있던 석축을 일부 견어내

고, 2층의 훼손된 석탑 부분은 새로운 돌을 활용해 4면 전체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 3층에서 6층까지의 석탑은 기존 형태와 유사하게 복원하면서 훼손돼 콘크리트로 땀질 했던 부분을 1층 하단부에서 견어낸 돌을 활용해 복원시킬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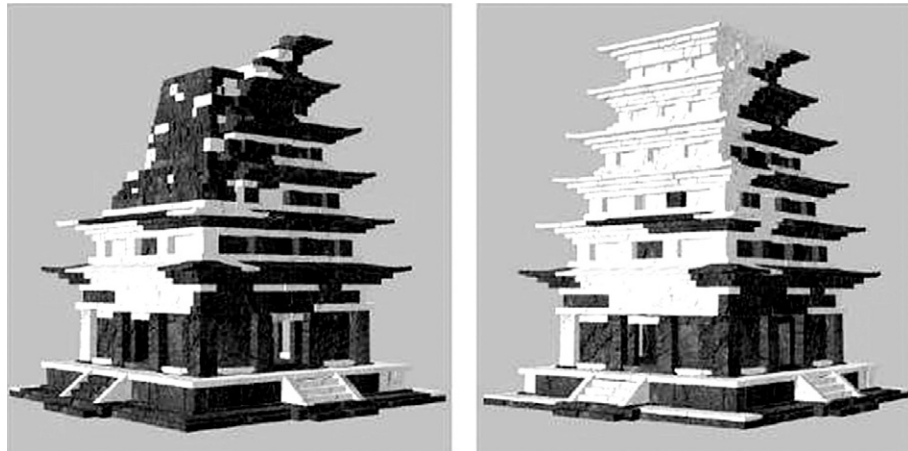
노기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학예사는

기단부 1층 12월까지 보존처리

2층 4면 전체 복원

3층~6층 기존돌 활용 방침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9층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고 높이는 석주 부분만 25m에 달하며 신라의 다보탑·석가탑보다 100년이 앞서고 목탑 건축 양식으로 쌓은 유일한 석탑으로도 유명하다”며 “미륵사지의 기본 이미지를 지켜가는 것을



현재훼손된 미륵사지 서석탑 3D조감도 및 복원 조감도.

기초로 2016년까지 복원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륵사에는 639년 창건 당시 1338만 4699㎡ 면적에 3개씩의 금당(金堂) 건물과 탑, 그리고 그 주변에 회랑이 있었다.

중앙부에 중원 건물과 목탑, 서쪽에 서원 건물과 서석탑, 동쪽에 동원 건물과 동석탑이 일렬로 서있고 현존하는 미륵사지

석탑은 서석탑이다. 2009년 1월 해체 과정에서 진신사리와 순금 사리장엄, 장건연대와 장건주를 기록한 사리봉안기, 백제의 유리제공 수준을 잘 보여주는 유리제품, 구슬, 칼, 금전(金錢), 관식(冠飾) 등 공양물로 쓰였던 500여 점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광 스님, 강원 후원금 전달

“불교의 후학들을 위한 기부는 종단의 미래를 위한 불교인의 작은 실천입니다”

강원과 울원의 학인스님들을 위한 기부가 진행되어 지역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3월 20일 순천 송광사 교구총회에 참석해 송광사 강원과 울원에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금은 연광 스님이 후원을 위해 틈틈이 모은 금액으로, 강원과 울원에서 어렵게 학업에 정진중인 스님들과 학사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연광 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짊어질 후학들이 좋은 여건에서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후원금의 의미를 말했다.

이날 송광사 교구총회는 2013년 1/4 분지 주지 품신현황과 사찰등록현황, 교역적·재가자 인사, 보조금 사용내역, 교



구내 불사 현황 관리 시행안, 2013년 주요행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한편 송광사는 지난 14일 경내 사자루에서 ‘송광사 불일학당’ 제1기 입학식을 갖고 첫 학기를 시작했다. 모두 12주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불일학당은 주 1회 2시간씩 △불교문화 △불교란 무엇인가? △한국의 불교사 △송광사의 이해 △불자의 신앙과 수행 △현장학습 △템플스테이 △수계식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고 놀아요”

전주서원노인복지관, 11월까지 방과후 어린이 교실 운영



전주서원노인복지관 어린이교실에서 할머니와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 종이 가면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들의 재롱과 웃음소리로 주위 어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이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전주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방과후 어린이 교실을 운영한다.

서원복지관내의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동화구연,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생활한자 배우기, 종이접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고 후 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과 재미있는 종이접기 놀이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으며 자연스럽게 생활예절도 어

신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교대부속초교 윤수민 양의 어머니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학원에 보내 아이들을 구속하고 싶지는 않다”며 “어르신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예절도 배우고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살볼 수 있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도서관담당 박경덕 선생님은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더 반겨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관장 보연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대간 계층간 벽을 허물고 함께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돼야”

문빈정사, 한반도 위기 해소 위한 문화공연 개최



자주통일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선 스님(우측)과 최명진 목사

광주전남지역 예술인과 불교단체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해소를 위한 예술 난장을 펼쳤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3월 16일 무등산 입구 사찰 앞마당에서 놀이패 신명과 함께 ‘불어라 평화바람’이란 주제로 문화공연과 이야기 나눔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반도에 고조되는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협정을 체결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했다.

법선 스님은 이야기 나눔에서 “분단된 한반도에 자주통일을 이야기 하지 않는 진보와 보수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전쟁이 없는 평화와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명진 목사의 진행한 이날 행사는 일주간의 타악공연을 시작으로, 우물안의 개구리, 민족문화작가회의 평화시 낭송, 사자춤이 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과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최근 한반도의 위기해소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광주 YMCA에서 ‘전쟁 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광주평화선언’과 평화염서쓰기, 온라인 평화물결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16일 문빈정사 앞 마당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열었다.

전북불교회관, 출가에서 열반까지 특별정진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룡)는 불기 2557년 출가열반 정진기간을 맞아 3월 19~26일 8일간 4층 큰 법당에서 특별정진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출가의 의미와 진리가 하나된 열반의 큰 뜻을 되새기고 올바른 수행활동과 참되고 진실된 수행을 통하여 참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정진법회는 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진 법회는 매일 자비도량 참법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나를 깨치는 108배, 신묘장구대다라니 봉독, 참선 등이 진행됐다.

보룡 스님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출가의 큰 뜻과 열반의 정신을 되새기고 올바른 수행생활을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각종 제 2기 임원진 선출 및 임명식

선각종의 미래 행정을 담당할 제2기 임원진이 선출됐다.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3월 22일 광주 수자타에서 각 부처 원장 및 간부 임명식을 봉행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원로의원에 동명 스님, 자공 스님, 혜운 스님, 혜원 스님, 법혜 스님, 정각 스님, 선지 스님, 선오 스님, 각림 스님이 위촉됐으며, 종책연구실장에 현암 스님이 임명됐다.

이어 중앙총회의장에 거산 스님, 부의장에 보안 스님, 승정원장 진환 스님, 중앙포교원장 벽해 스님, 중앙교육원장 해명 스님, 법계고시원장 진원 스님, 국제불교문화원장 해룡 스님, 사정원장 진하 스님, 호법원장 해광 스님, 보견복지원장 해관 스님, 교정교화원장 선오 스님, 문화예술원장 목언 스님, 환경원장 정각 스님, 사회복지원장 원주 스님, 국제불교포교원장



선각종 임원들이 종단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해수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또 각 지역교구원장과 총무원 각 부장이 이날 임명장을 받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각종이 한국의 대표적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총화중

害宗 行爲者 擄奪度牒 公告

(해중 행위자 체탈도첩 공고)

(1) 부산 천불정사

속명 : 조성부 법명 : 고담 법호 : 수일

상기자는 본종 중흥 중법에 의하여 2013년 3월 15일 오전 11시 수진사 관음전에서 제 73차 중앙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議決하였음을 공고함.

- 다음 -

- ① 서울 종로소재 총무원 건물 보수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② 상벌위원회의 징계결정 내용 상정에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상기자와 아래 동참 동행한 자 또한 같은 징계에 처하기로 議決하였음.
 - ▣ 서울(약사사, 불무사) 박근성(현오)
 - ▣ 서울(보광사) 엄동일(남오)
 - ▣ 강원(보광사 - 타종단) 조동락(민호)
 - ▣ 경북(일광사) 정은환(일광)
- ③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우리 종단을 와해시키려는 해중행위자들에게 현혹되어 동조치 마시고 더욱 애중하는 마음으로 굳건한 종단이 되도록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2013년 3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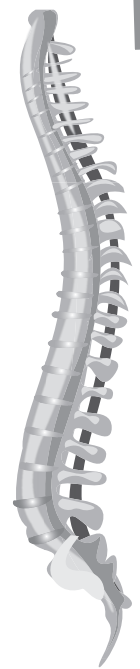
대한불교총화중

상벌위원장 이만오 중회의장 최만재 총무원장 전남정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스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형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